

전통의 남해 가천마을과 지역경영형의 순창군

오 형은 간사

(녹색교류대학 최고지도자과정)

며칠 오던 비가 여전한던 4월 마지막날 우리들은 남해에서도 남쪽 끝 가천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생각보다 멀다며, 들어오는 길이 안보여서 찾기 힘들었다며, 강원도라 전날 출발해서 도착했다 하시며 인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다랭이, 다랭이들, 푸른 마늘 냄새, 발아래 보이는 바다, 따뜻한 마을사람들, 씩씩한 청년회 부회장님 사이에서 힘든 여정을 잊은 채 녹색교류대학 최고지도자과정 3회차 전통마을의 자원화와 관리에 대한 수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한 두 가지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마을들 이야기, 자원은 마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마을의 문화자원 발견이야기, 마을의 경관

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 일본의 농촌마을의 자원화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새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홍보를 위해 엽서와 우표를 만든 쓰마고마을, 재앙이던 눈이 자원이 된 시라카와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들 여기 이 오지마을 가천의 가파른 돌담길, 짙은 밤바다 안개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들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가득한 이 작은 마을의 밤은 금세 깊어갔습니다. 바다를 정원으로 안고 사시는 아주머니는 밤새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에서, 마을의 크고 작은 사건들, 지난번 다녀간 사람들의 뒷이야기, 주인아저씨 자랑까지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놓으셨습니다.

가천의 이튿날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서서히 밀려날 듯 말 듯한 사이 아주머니는 12가지 반찬이 가득한 상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손수 따오셨다는 미역, 톳, 마늘종이 놓여진 거한 아침을 받고서 감사와 부탁의 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지수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는 맛난 것들만으로도 너무 맛있게 먹겠어요, 5가지 반찬으로도 족합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최미자 선생님의 가천 마을의 계획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주민과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최미자 선생님



▲ 전통의 가천마을 -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미륵불 앞에서 마을 이장님과 함께

의 가천마을을 위한 조언부탁한다는 말이 마치기도 전에 모두들 마을의 입구성 부족, 기초편의시설부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고려 등에 대한 충고를 격려와 칭찬과 함께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장님의 안내로 가천 마을을 돌아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천마을의 다랭이 논을 뒤로한채 3회차 교육은 끝이 났습니다.

순창 가는 날은 매번 교육 때와 달리 맑은 하늘 아래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순창군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운영되는 지역을 직접 보면서, 지역경영형 도농교류 방안이라는 주제의 교육을 받으러 순창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창군 어디서나『그린투어리즘 순창』이란 플랜카드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연구하는 순창군 지역주민들의 모임인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회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순창군의 시범마을인 구림면 안정리, 고추장민속마을, 최초의 군립공원인 강천산 군립공원, 허브를 테마로 한 서원관광 농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순창군수가 마련한 저녁만찬을 함께 하며 그 이가 자랑하는 순창의 노력에서 지자체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열정을 조금이나마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슬슬 내리는 가운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 농업농촌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에 대한 두 분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12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로 자리를 옮겼지만 모두들 농업과 농촌,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느라 그날 밤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 운영방안에 대해, 녹색교



▲ 허브를 테마로하는 서원관광농원에서 순창군수와 함께

류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준비하는 진안군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강의를 듣고 임실로 떠났습니다.

임실에서는 제일교회 목사님으로부터 『懶農者 雜草 (나농자 잡초) 篤農者 作穀 (독농자 작곡) 上農者 作土 (상농자 작토) 聖農者 作人 (성농자 작인)』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듣고 요구르트공장에 갔습니다. 젊은 청년이 스위스를 오가며 유가공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작지만 품질 높은 자연숙성치즈, 요구르트를 만드는 가정공장이었습니다. 농촌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의 또 다른 대안을 젊은 그를 통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업을 얼마나 확장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주 찬찬히 그리고 힘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만큼만, 저기 보이는 목장에서 생산되는 량만큼만 할겁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가정공장을 짓고자 하면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정공장이 많아 야 다양하고 질높은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겠지요"

그의 소신 있는 꿈과 유기농업을 준비하는 마을과 목사님을 뒤로한 채 제 1기 녹색교류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의 4회차 과정도 끝이 났습니다. ㉞